

뿌리깊은 순복음(125)

순복음의 7대 신앙 -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38)

진정한 사랑만이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는 역동적인 은사들은 교회에 '덕'(德)을 끼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낸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바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언급한다. 성령의 열매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장'(章)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에 이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한다(고전 13:4). 우리 속담에 '사촌이 받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인간의 그릇된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특징이 있다. 시기는 반드시 질투에서 비롯된다. 시기와 질투는 옛사람의 성품이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질투에 속한 사람들을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정의했다(고전 3:3).

심리학자 케이지프 노이드에 의하면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6가지 마음의 감옥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소위 공주병이나 왕자병과 같은 '자기도취의 감옥'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고 험담하는 '비판의 감옥'이다. 셋째는 온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절망의 감옥'이며, 넷째는 지나치게 과거에 연연해 현재를 낭비하는 '과거지향의 감옥'이다. 다섯째는 자기의 것은 하찮고 남의 떡만 더 커 보이는 '부러움의 감옥'이고, 여섯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험담하고 싶어지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약 3:16).

유대인의 지혜 모음집 탈무드는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을 온전히 볼 수가 없고 형태도 없고 실체도 없는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진정한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다. 고난에 처한 자와 함께 슬퍼함은 물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복을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롬 12:15).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질투를 극복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다. 그는 일국의 왕자였고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다. 그에 비해 그의 친구 다윗은 평민 출신이면서 양치던 사람이었지만 민중의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요나단의 경쟁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요나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향한 시기나 질투의 흔적이 없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다음 달에 계속)
김예복 목사

칼럼



이재하 목사
(마포2대교구장)

작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올해는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무대에 섰다. 그녀는 영화 '코다'(CODA)에서 선천적 청각장애인 아버지 역을 열연한 '트로이 코치'가 수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화까지 연습하는 열의를 보였다. 실제로 '트로이 코치'는 영화에서처럼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윤여정 씨는 남우조연상 후보 5명을 차례로 호명한 후 수상자가 기록된 봉투를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트로이 코치를 배려해 서

툴지만 수어를 통해 진심을 표현한 후 수상자를 호명했다.

그리고 윤여정 씨가 등단한 트로이 코치에게 트로피를 전달한 후 다시 빼앗는 듯한 행동은 아카데미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런데 곧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선천적 언어 장애인 그가 수상 소감을 수여로 할 수 있도록 트로피를 대신 들어 준 배려였다. 이를 본 참석자들 역시 박수 대신 양손을 들어 흔들며 수어로 축하했다.

배려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주일 예배 후 도망치듯 퇴장하는 성도들이 뒤에서 밀면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는다. 간혹 연세 드신 성도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거나 앞을 향해 손을 내밀어 시야를 확보하려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한 반사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때 윤여정 씨의 배려처럼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어

떨까? 물론 생각지 않게 타인의 손이 신체 일부에 닿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어깨와 손을 내밀어 먼저 잡아주면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가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여정 씨의 작은 배려가 모든 관객과 세계를 홀린 것처럼 어깨를 잠시 내어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배려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리라 본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어깨를 내어주시며 기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넘어지려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심으로 수 없이 많이 넘어질 순간들을 피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어깨가 되어주고 손을 내밀 때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

만남과 변화



정진영 집사
(반석대교구)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나는 결혼을 통해 생전 겪지 못한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 1983년, 1984년 연년생으로 힘들게 아들 둘을 낳았고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남편과 불화가 있었다. 게다가 29살 때 높은 곳에 있는 걸 꺼내다가 떨어진 물건에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코피가 한없이 쏟아져 병원에서 가가스로 지혈을 했지만 이후부터 늘 빈혈증세로 기력이 없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좋다는 병원, 약국을 여러 군데 가도 고칠 수 없었다.

몸도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 이를 해결하고자 아는 사람을 만나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 밖을 보고 있노라니 비바람이 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서 있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왜 굳은 날씨에 교회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기에...

나는 뭔가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일어나 교회로 갔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복도 어디선가 바람결에 향긋하고 달콤한

“사람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향기가 나면서 내 지친 몸이 썩 치유가 되는 듯했다.

이 체험 후 나는 물론 아이들까지 교회에 등록시켰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교구 식구들과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성전 바닥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에 기겁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회개기도를 드렸지만 집은 온 다음 날부터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다.

방황의 시간을 수개월 보낸 나는 다른 교회로 출석하게 됐다. 그리고 한 제약회사의 영양제를 복용했는데 내 몸에 잘 맞아서 건강을 회복했고 이를 인연으로 1992년 그 회사에 입사했다. 열심히 근무하니 승진도 하고 월급이 100만원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나는 신우회를 조직했고 매주 300명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퇴사를 한 후 언제나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고, 우울증이 나를 덮쳤다. 당시 아이들마저 자이툰 부대원으로 이라크에 파병 간 상태였다.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이끄셨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여의도순복

음교회를 찾아왔다. 앉아서 십자가를 멎히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은 다 떠났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

이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내 상담학교 초급반부터 전 과정을 이수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가페전 화상담실에서 봉사도 했다.

2012년에는 현재까지 다니는 회사에 취업했다. 취업할 때 회장님께 신우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겠다는 제안을 했고 허락을 받았다. 이제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한다. 3년 전부터는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에서 봉사 중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닌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다.

정리=복순희 기자



오늘의 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6월 23일(목) -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 말씀 : 고전 12:12 ◎ 찬송 : 새 29장(통 29장)

개미들을 얼핏 보면 각자가 서로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생존과 종족의 번식이라는 큰 목적 아래 모든 개미가 한 몸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서로 독립적인 일,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4일(금) -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 말씀 : 시 63:3 ◎ 찬송 : 새 365장(통 484장)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통해 자신이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으며(시 139:13), 그의 인생을 높이고 지켜주셨습니다(삼하 22:49).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고 그 사랑은 오늘 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롬 5:8).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은 곧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5일(토) - 선으로 악을 이기라

◎ 말씀 : 롬 12:21 ◎ 찬송 : 새 357장(통 397장)

이전에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종종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니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살아라”는 말이 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당연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롬 8:28).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도전해봅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손해에 연연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